만화의 매력 속에 불교를 넣다

솔바람, '만화 불교이야기' 시리즈 12년만에 복간



지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1000만 부를 돌파해 '텐밀리언셀러'에 등극한 도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해리포터', 'Why', '마법 천자문' 시리즈 등 네 종이다. 해리포터를 제외하고는 과학 학습만화인 'Why' 시리즈와 '마법 천자문'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통 교육용 만화인데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 만화를 통해 고전을 익히려는 학생들이 주독자층이다.

이처럼 교육 또는 교양적 요소를 담은 만화들의 대박 행진이 이어지면서, 제2의 '마법 천자문'을 꿈꾸는 교육용 만화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일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불교를 쉽고 흥미있게 전하는 만화가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도서출판 솔바람(대표 동출)이 펴낸 '만화 불교이야기' 시리즈(전 5권)가 그것.

<만화 불교이야기>는 부처님의 일생, 고승들의 일화, 불교의 근본 사상, 불교문화와 상식, 생활속의 불교 등을 통해 방대하고 심오한 불교의 모든 것을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 설명해 준다.

제1권 '부처님 생애'는 불교의 시작과 참된 가르침, 부처님이 전한 맑고 서늘한 깨달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제2권 '인물 불교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불교를 이끌어온 위대한 고승들의 일화, 중국 및 한국 고승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내 불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제3권 '근본 불교'는 사성제, 팔정도, 윤회, 해탈, 자비 등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막막해지는 근본 가르침과 개념 등을 우화와 고사를 빌어 풀이해 준다. 제4권 '대승불교'는 아함경, 법구경, 화엄경, 법화경, 반야심경, 금강경 등 초기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전들을 통해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제5권 '불교 문화와 상식'은 우리의 언어와 문학, 건축, 음악, 미술, 문화재 등에 깊숙이 스며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불교 상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만화 불교이야기>의 글을 쓴 소설 <단>의 저자인 김정빈 작가는 9월 22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자일수록 어려운 이치를 쉽고 단순하게 말하는 법이다. 난해한 불교를 '현자의 단순성'에 근접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공동저자인 최병용 만화가는 "최근 만화가 드라마, 영화 등의 원작으로 쓰이면서 만화시장은 이제 성인들에게도 어필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만화를 불교 포교에 적극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원에서 나왔다 절판된 <만화 불교이야기>를 12년만에 재발간한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은 "현재 12권을 펴냈지만, 앞으로도 청소년 및 성인대상의 교양 불교만화를 지속적으로 펴내겠다"고 밝혔다.

성공인생 마음공부 | 만화 불교이야기 | 김정빈 글, 최병용 만화 | 솔바람 | 각권 9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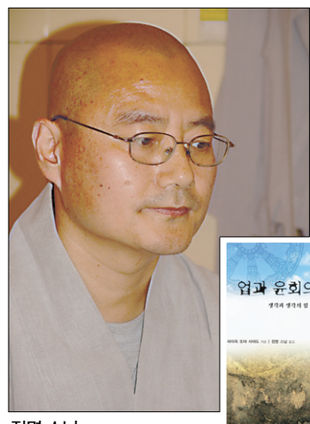
김성우 기자


공동저자인 김정빈 작가(右)와 최병용 만화가.

"수행은 생각의 힘 실천하는 것"

정명 스님, 우 아찐나 스님 '업과 윤회의 법칙' 번역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자인 김천 성전사(www.jungmyeong.com) 주지 정명 스님이 미얀마 파아옥명상센터 선원장인 파아옥 또야 사야도(우 아찐나 스님)의 저서 <업과 윤회의 법칙-생각과 생각의 힘(The Workings of Kamma)>을 번역 출간했다.


정명 스님.

파아옥 또야 사야도는 미얀마 정부에서 '명상수행을 지도하는 훌륭하신 큰 스님'이라는 칭호를 부여 받은 고승으로 부처님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으로 유명하다. 스님의 명저 <업과 윤회의 법칙>은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바른 수행을 닦기 위해서는 최고의 행복(열반)을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며, 업과 업의 과보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 업이란 생각이고, 그 과보란 생각의 결과이다. 따라서 수행이란 생각과 생각의 힘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명 스님은 9월 17일 인터뷰를 통해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생사(生死)"임을 분명히 했다.

"보고 듣고 냄새맡고 감촉하는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알음알이가 일어나서는 사라지며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바로 이 순간 셀 수도 없는 생과 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 스님은 윤회의 흐름에 등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보는 순간에 알아차림이 되고, 들리는 순간에 알아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것을 '현명한 주의력'이라 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행복의 길인 도덕적인 삶과 마음을 통제하고 집중하는 삼매와 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통찰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명 스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은 다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워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며 "바로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이 순간에 100%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명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왜곡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부처님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며 법보시로 책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54)434-9090.

업과 윤회의 법칙 | 우 아찐나 저, 정명 역 | 향지 | 법보시

김성우 기자

제6회 불교출판문화상

10월 5일까지 공모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주관하는 '제6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을 위한 공모가 시작됐다.

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상은 올해의 불서 10종(상금 각 50만원)을 비롯해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1종(300만원), 우수상 2종(각 100만원)을 시상한다. 2008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저·역서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결과 발표는 11월 중순에,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신청자는 10월 5일까지 기본 서지정보 및 개요(300자 내외) 1부, 신청도서 5부(4권 이상 전집은 2질)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내 불교출판문화협회. 문의: (02)3672-7181

김성우 기자

창조적 최면으로 행복한 성공

설기문 동방대학원대 교수, 잠재능력 개발법 제시



"자신을 위한 창조적 성공을 원한다면, 그 성공적 상황을 강력하게 상상하고, 마치 그 성공을 이미 이룬 것처럼 오감적 차원에 연합하여 몰입하여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막강한 자력을 가진 자석처럼 자기최면이 되어 당신이 꿈꾸는 성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끌어당겨 줄 것이다."

<창조적 성공최면>(마음살림 RTN)의 저자 설기문 동방대학원대 교수(자연치유학과 NLP(신경언어학 프로그램)최면 전공)는 이것을 '자기최면의 원리'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전생체험 등 최면 프로그램을 각종 방송매체에 소개해 온 설 교수는 9월 21일 가진 인터뷰에서 "인간의 잠재 능력을 깨워 저마다의 불성(佛性)이 지닌 지닌 무한 능력을 발휘하게 해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도록 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설 교수에 따르면, 최면이란 마음과 잠재의식의 원리를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상태나 목표를 잘 이룩하고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기계발 전문가인 얼 나이팅게일은 "인생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일은 바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듯이, 최면은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一切唯心造)'는 유심(唯心)의 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설 교수는 10월부터 6개월간 불교TV에서 '마음과 최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창조적 성공최면 | 설기문 글, 박다원 그림 | 마음살림RTN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禪의 세계 그린 시집

'仙歌-신선의 노래' 출간



"물속 달 잡으려다 진짜 달 놓친 너/ 날 찾아 거울 안을 끊임없이 헤매다/ 몽夢 몽夢 몽夢 담배 연기로 물음표만 그리네."(심외무불(心外無佛))

시조시인 한상철 거사가 전통율격을 엄격히 지킨 대구(對句) 형식의 평시조 108수를 시조집 <仙歌-신선의 노래>(삶과꿈)에 담아 펴냈다.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수의 시조를 통해 저자는 국민은행 지점장과 산악연맹 이사를 역임하며 겪은 인생의 풍상과 수행여정을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시조로 노래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선(禪)을 논하고, 신선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영혼을 태웠으니, 어찌 마음의 재가 남지 않겠는가?"라며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철칙을 어긴 실수를 토로하고 있다.

仙歌-신선의 노래 | 한상철 | 삶과꿈 | 1만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뜰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5	5분참선	현담	선
6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일곱 번의 작별인사	무비	불광출판사
8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9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원철	호미
10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